정읍시, 안전도시 만든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재난예경보시스템 강화 등
선제적 재해예방·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 총력

정읍시가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선제적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시민 중심의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선제적 재해예방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재난예경보시스템 강화 등 체계적인 자연 재난 예방 대응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산내면 매죽리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해 2021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죽리 일원 급경사지는 암반이 국지도 55호선까지 침범해 주민과 차량 통행 시 낙석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낙석의 우려가 큰 지역이다.

정읍시는 선제적 재해예방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 재난 예방 대응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낙석과 사면붕괴 방지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 등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외면 정량리 일원에 '정량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2021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산외면 원정마을은 하천 폭이 협소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한 재해 취약지역이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사업비 59억8,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54%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와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도 추가 설치한다.

시는 현재 재난예경보시스템 37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특별교부세 등 약 10억을 투자해 209개소를 설치하는 등 재난 예방에 힘써왔다.

2021년에도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에 대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시민 자동 가입, 자연재해·익사 등 11가지 항목 보장

정읍시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11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시민안전보험의 갱신 가입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정읍에 거주지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일사, 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등 11개 항목이다. 상해 후유 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장 범위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지역균형뉴딜 사업 본격 시동

민주당 대표에 해창석산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사업 협조요청

부안군이 지역균형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군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 사업 중 지방으로 투자되는 75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부안 새만금 해상풍력 실증단지 방문에 이어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부안에서 개최하며 향후 그린뉴딜과 관련한 부안의 발전가능성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오는 2021년부터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해창석산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해창석산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새만금 역사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해창석산 부지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소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와 그 부산물인 온수를 이용해 효율적인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각각의 스마트팜은 청년농부 등에 분양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격포항 확장을 통한 해상풍력 유지보수 클러스트 사업과 새만금 VR/AR 테마파크&리조트 조성, 고분지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등 약 27개의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수소연료전지 스타트업 2곳 유치

부안군은 2020년 신성장 패키지 기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소연료전지 스타트업인 ㈜파셀(대표 황용신)과 ㈜에프씨엠테크놀로지(대표 이정규)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건물용 연료전지 시제품과 막전극접합체(MEA) 기술개발 위한 장비사용과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수소연료전지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성장 패키지 기업지원사업은 수소·연료전지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이전, 신·증설하는 국내·외 스타트업에 연간 최대 7000만원 이내에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지원 협약을 통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2020 도시재생 포럼 in 부안'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난 22일 부안군 소재 모항 해나루호텔에서 도시재생분야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과 함께 '2020 도시재생 포럼 in 부안'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청년, 지방도시, 도시재생뉴딜'을 주제로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 '안테나'에서 포럼을 생중계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현장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절반의 발표자는 줌(Zoom)을 통해 진행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 ▲제 1부는 주요 행사는 전라북도 도시재생 성과공유회와 함께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과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장의 축사로 구성됐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문찬기 부안군 의장, 이원택 전북 김제시부안군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한 ▲제 2부는 '지방소멸위기와 지방도시 네트워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김동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송준환 일본 야마구치 대학교 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연사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제 3부에서는 '로컬, 그리고 청년'이라는 주제로 윤주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원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소장, 이용원 ㈜안테나 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의 참여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 소식통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고창군, 현재 68곳 운영

고창군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축산환경관리원 등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깨끗한 축산농가에 현재 68곳이 지정돼 운영중이다. 지난해 30개 농가에 이어 올해도 38개 농가가 지정되는 등 지역내 깨끗한 축산 농가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깨끗한 축산에 대한 농가 관심도 크다. 앞서 올해 총 52개소가 신청해 전북도 신청목표인 35개를 훌쩍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로 농장 지정 신청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서류와 현장평가로 총점 70점 이상이 돼야 지정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농장 조경, 축사 정리정돈, 악취저감시설, 사육밀도 등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사랑의 온도탑 펄펄

잇따른 나눔과 기부의 동참 릴레이로 고창군의 희망2021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벌써 50도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1일 캠페인 출범을 시작한지 3주 남짓한 기간에 달성한 성과다.

지난 21일 고창군청에 나눔과 기부로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고사리 손들이 뭉쳤다. 고창읍 사회복지법인 아이세상어린이집(원장 최은미)에서 어린이 10명이 군수실을 방문해 사랑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밖에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센터장 정진유)에서 100만원을, 대성전력주식회사(대표 권광식)에서 200만원을, ㈜가나묘지 이장공사(대표 최정화)에서 200만원을,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회장 손영찬)에서도 200만원을 기탁했다. 고창군체육회 초대 민간 체육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교만 선운양만장 대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원을 기탁했다. 또 고창군낙우회 청년분과(위원장 황태경)에서 200ml 우유 2304개을 고창군에 기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